

勞 動 經 濟 論 集
 第38卷 第2號, 2015. 6, pp.59~87
 © 韓 國 勞 動 經 濟 學 會

여성결혼이민자의 임금함수 추정*

조 성 호**·변 수 정***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여성결혼이민자들의 임금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인적자본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2012년 전국 다문화가족 실태조사」의 원자료를 이용하여 분석한 결과, 학력이 임금에 미치는 영향은 1.0-1.3%로 상대적으로 작았으며, 모국에서 취득한 학력이 한국 노동시장에서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러나 모국에서의 직무경험은 유의한 영향이 없었으며, 한국에서의 직무경험을 대리하는 변수로 한국 체류기간을 도입하였는데 이 또한 유의하지 않았다. 학력에 의한 임금 프리미엄은 중국 출신 조선족과 기타 아시아 및 그 외 국가의 여성에게서 나타났으며, 직종별 임금은 모든 국가에서 관리 및 전문·사무직이 가장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단, 관리 및 전문·사무직은 국적별로도 학력 프리미엄이 가장 큰 직종으로 나타났는데, 이러한 경향은 주로 중국(한족, 조선족)과 베트남 출신 여성결혼이민자에게서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주제어: 여성결혼이민자, 임금함수, 인적자본

논문 접수일: 2015년 4월 15일, 논문 수정일: 2015년 6월 15일, 논문 게재확정일: 2015년 6월 19일

* 본 논문 집필에 있어서 유익한 조언을 해주신 Keita Suga 박사님(일본 국립 사회보장·인구문제연구소), 두 분의 익명 심사자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본 논문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발행한 ‘결혼이민자 및 그 자녀의 인구자질에 대한 연구’ 제 4장에 수록된 내용을 대폭 수정 및 보완한 것이다.

** (제 1저자) 한국보건사회연구원(jotting0207@gmail.com)

*** (교신저자) 한국보건사회연구원(byoun1@gmail.com)

I. 서론

2014년 현재 우리나라에 체류 중인 결혼이민자는 혼인귀화자를 포함하여 약 24만 명에 이르고, 이 중 여성이 21만 명 이상으로 약 89%에 이른다(행정자치부, 2014). 이 여성들은 대부분 중국 및 동아시아에서 더 나은 경제적 삶을 기대하며 한국 남성과의 결혼을 통해 한국으로 이주해 온 여성들이다. 그러나 이 여성들과 결혼한 한국 남성들 중에는 한국 여성과의 결혼이 어려워 외국 여성과의 결혼을 선택한 경우들이 있다. 따라서 한국 남성이 가진 경제적 상황 및 기타 여건들이 이주여성들이 기대했던 것보다 열악한 상황이 있기도 하기 때문에 안정적인 결혼생활이 유지되지 않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기도 한다.

결혼이민자들이 이룬 다문화가정의 소득 수준을 우리나라 일반가정과 비교해 보면, 2013년 우리나라 전가구의 월평균 소득이 416만 원인 데 비하여(통계청, 2014), 월평균 가구소득이 300만 원 이하인 다문화가정이 약 70%, 결혼이민자의 배우자 임금이 200만 원 이하가 약 60%로(전기택 외, 2013), 우리나라 가정에 비하여 다문화가정의 환경이 경제적으로 열악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경향은 다문화가정의 노후 문제와도 직결될 수 있다. 즉, 그들의 낮은 소득으로 인하여 노후 대비가 충분치 못할 수 있다는 것을 예상할 수 있다. 게다가 한국 남성과 외국 여성으로 이루어진 부부의 경우, 그들이 나이 차이가 평균 12.1세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통계청, 2010), 한국인 남성 배우자가 정년을 맞이한 후 결혼이민자 여성 본인이 노동시장에 참여하여 생계를 이어나가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는 가구가 많아질 수 있다. 여성결혼이민자가 일하고 있지 않은 경우 한국인 남성 배우자의 은퇴는 빈곤과 연결될 수 있고, 이는 곧 정부의 사회보장지출 증가 부담 문제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여성결혼이민자의 소득은 다문화가정의 생계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에도 중요한 역할을 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

여성결혼이민자가 배우자의 은퇴 시점에 이르러서 안정적인 생활을 위해 노동시장에 진입을 시도하게 된다면, 한국 노동시장에서 축적된 인적자본 부족으로 인해 직업 선택의 폭이 제한적일 수 있고, 그로 인해 단순 노동에 종사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 이러한 상황 하에서는 적절한 소득을 얻기보다는 저소득에 머무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여성결혼이민자들이 자신의 능력과 특기를 발휘하며 그에 알맞은 소득을 얻으며 안정적인 생활을 해 나갈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는 그들이 취업을 하여 소득이 있다 하더라도 그 소득이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어떠한 요인에 영향을 받는지를 파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할 것이다.

이민자들의 노동시장 퍼포먼스는 인적자본과의 관계로 설명할 수 있다. 인적자본의 축적은 생산성을 증가시키고(Becker, 1993), 노동시장에서의 경험은 그 분야에 대한 기술의 숙련도를 의미하며(Mincer, 1958, 1974), 이 두 요인은 임금에 양의 영향을 미친다고 하고 있다. 노동시장에서의 경험과 더불어, 가장 많이 논의되는 인적자본은 바로 교육이다. Ferrer and Riddell(2008)은 이민자들의 인적자본과 소득과의 관계에 대한 연구에서 인구센서스 자료를 이용하여 캐나다로 이민 온 자들의 소득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그 결과, 캐나다에서 태어나고 자란 이민자에 비하여 나중에 이민 온 자의 학력(교육연수)에 의한 소득 상승효과가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고, Adamuti-Trache and Sweet(2005)와 Fong and Cao(2009)의 연구 또한 유사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한국에서는, 양인숙·김선혜(2011)가 여성결혼이민자의 인적자본이 소득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2009 전국 다문화가족 실태조사」의 원자료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는데, 그 결과 학력이 높을수록 여성결혼이민자의 소득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민자의 인적자본은 이민국의 노동시장에서 적용되는 정도가 다를 수 있기 때문에(Ferrer & Riddell, 2008; Matto et al., 2008), 인적자본을 이민자의 연구에 적용할 때에는 이민국가 노동시장에서의 인적자본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특히 이민국가(destination country)가 출신국가(origin country)보다 더욱 발전된 나라일 경우, 출신국의 학위나 학력은 이민국의 노동시장에서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반면(Kanas & van Tubergen, 2009; Zeng & Xie, 2004), 이민국에서 취득한 학력은 그 국가 노동시장의 수요와 매치가 잘 되기 때문에 이민국 노동시장에서 중요하게 작용한다(Kanas & van Tubergen, 2009; Long, 1980; Sanromá et al., 2009). 따라서 이민자의 인적자본과 관련된 연구에서는 이민자들에게는 모국(origin country)에서 취득한 인적자본과 이민국가에서 축적한 인적자본(직무경험 포함)을 구분 짓기도 한다(Chiswick, 1978; Friedberg, 2000; Sanromá et al., 2009). 본 연구의 대상인 여성결혼이민자들은 대부분 교육을 마치고 이주해 오기 때문에, 그들의 학력을 모국 축적 인적자본이라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서양에서는 노동시장에서 이민자들의 상황에 대한 연구가 다수 수행된 반면, 그동안 외국인들의 국내 이주가 활발하지 않았던 우리나라는 이민자, 특히 결혼이민자

의 노동시장과 관련된 연구는 드문 실정이다. 더욱이 여성결혼이민자의 임금 자체에 초점을 맞춘 연구는 찾아보기 힘들며, 그들의 노동공급과(강혜정·이규용, 2012; 양인숙·김선혜, 2011; 이규용 외, 2011, 2014), 취업 및 창업 지원에 관한 연구들이 대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김이선 외, 2008; 장명선, 2009; 장명선·이옥경, 2009; 장서영 외, 2009; 정기선 외, 2007). 최근 연구 중에서, 양인숙·김선혜(2011)과 이규용 외(2014)가 여성결혼이민자의 소득과 관련된 분석을 하고 있는데, 양인숙·김선혜(2011)의 연구에서는 학력이 높을수록 여성결혼이민자의 소득이 증가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으나, 통제변수가 다소 부족하다는 한계점이 있으며, 이규용 외(2014)의 연구는 인적자본에 대한 변수뿐만 아니라 종속변수 설정 및 연구 방향에서 본 연구와 차이를 보인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여성결혼이민자들의 인적자본과 임금 간의 관계를 파악하고자 하며, 인적자본 이외의 요인이 임금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도 분석하려 한다. 이에 더하여 우리나라에 거주하는 여성결혼이민자들은 그 국적이 상당히 다양하며, 아시아 국가 출신이라 해도 국가마다 사회·경제·문화적 배경 등 다양한 측면에서 차이를 보이기 때문에, 이러한 다양성을 무시한 채 여성결혼이민자를 한 그룹으로 분석하는 것은 적절치 못한 이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 즉, 인적자본이 임금에 미치는 영향이 다양한 국적에 따라 각기 다를 수 있기에 본 연구에서는 국적별 분석을 병행하여 그 차이를 분석한다.

II. 데이터 및 분석모델

1. 데이터¹⁾

본 연구에서는 「2012년 전국 다문화가족 실태조사」(이하, 다문화조사)의 원자료(raw data)를 사용하여 분석한다. 다문화조사는 우리나라에 거주하고 있는 다문화가정에 대하여 전반적인 조사를 하는 데이터일 뿐만 아니라 전국을 대표하고 있는 유일한 데이터이다. 따라서 이 데이터를 사용하면 모집단의 특성에 가장 가까운 결과를 도출할 수

1) 본 절은 전기택 외(2013)을 참조하여 서술하였다.

있는 최대 장점이 있다. 이 조사는 2012년 7월 10일부터 2012년 7월 31일에 걸쳐서 조사가 되었고, 조사대상은 4부류로 나눌 수 있는데 전국의 다문화가족 15,341가구, 결혼이민자·귀화자 총 15,001명(여성 12,531명, 남성 2,470명), 결혼이민자의 배우자 총 13,859명(여성 2,278명, 남성 11,581명), 만 9-24세의 결혼이민자 자녀 총 4,775명(여성 2,271명, 남성 2,504명)으로 구성된다. 주요 조사내용을 살펴보면, 가구구성 표에는 가구구성원, 자녀 보살핌, 월평균 소득 등 10개 항목이고, 결혼이민자·귀화자 등은 혼인상태, 가족관계 만족도, 경제활동 등 112개 항목, 배우자는 혼인상태, 가족관계 만족도, 경제활동 등 53개 항목, 만 9-24세 자녀는 한국어 사용, 학교폭력 경험 등 71개 항목이 조사되었다.

다문화와 관련된 많은 실증연구들이 소규모의 독자적인 데이터로 분석한 것이 많은데, 이러한 연구는 연구자의 관심 분야에 대하여 그 어떤 데이터보다 구체적인 정보를 확보할 수 있고, 그 특성에 대한 심층적인 분석을 할 수 있다는 점이 장점으로 작용하지만, 모집단을 대표할 수 없다는 점에서 결정적인 약점을 가지고 있다. 또한, 결혼이민자와 관련된 대부분의 연구의 대상은 센터에 방문하는 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가 많은데, 센터에 방문하는 결혼이민자들의 경우 대부분 보통 이상의 생활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모집단과 매우 큰 편향(bias)을 가질 가능성이 크다. 이해 비해 본 연구에서는 전국을 대표하고 일반화할 수 있는 전국 규모의 데이터인 다문화조사를 사용하여 분석을 한다.

본 연구의 분석대상은 결혼을 계기로 우리나라에 이주한 여성들이다. 따라서 타국의 국적을 가지고 있으면서 우리나라에서 태어나고 자란 여성 및 어린 시절에 입국한 여성들은 분석대상에서 제외한다.²⁾ 또한, 자영업과 임금 노동자의 임금 및 소득의 결정요인은 다르기 때문에 이 둘을 나누어 분석해야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임금 노동자만을 대상으로 하며³⁾, 농림어업 종사자는 대부분 자영업이기 때문에 제외한다.

-
- 2) 이러한 경향은 중국계(주로 대만·홍콩) 국적 여성결혼이민자들에게 주로 발견되었다. 그들은 결혼을 계기로 우리나라로 이주한 것이 아닌 우리나라에서 태어나고 자랐음에도 국적이 한국이 아닌 것뿐이기 때문에(화교), 일반적인 여성결혼이민자와 그 성격을 달리 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중에는 외국에서 태어나 자란 여성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만 18세 이전에 입국한 여성을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 3) 본 연구대상의 약 90%가 임금 노동자이다.

2. 분석 모델 및 변수

가. 분석 모델

본 연구의 분석 모델은 Mincer(1974)를 참조하여, 이민자 고유의 요인을 도입한 식 (1)과 같은 임금함수를 구성하였다.

$$\begin{aligned} \log Y_i = & \beta_0 + \beta_1 Edu_i + \beta_2 Exp_i + \beta_3 Exp_i^2 \\ & + \beta_4 YSM_i + \beta_5 YSM_i^2 + \gamma Job_i + \delta X_i + \epsilon_i \end{aligned} \quad (1)$$

여기에서 Y_i 는 종속변수로서 임금을 나타내며, Edu_i 는 교육연수, Exp_i 는 직무경험 연수, YSM_i 은 한국 체류기간(years since migration), Job_i 는 직종, X_i 는 그 외의 컨트롤 변수를 나타낸다. 그러나 본 연구의 분석 대상이 여성이기 때문에 식(1)을 추정하기 전에 자기 선택 편의(self selection bias)를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임금함수를 추정하기 이전에 어떠한 여성들이 취업을 선택하는지 또는 선택하지 않는지에 대한 분석이 선행되어야 한다(Heckman, 1979).

$$\begin{aligned} y_i^* = & \beta_0 + \beta_1 Edu_i + \beta_2 Exp_i + \beta_3 Exp_i^2 \\ & + \beta_4 YSM_i + \beta_5 YSM_i^2 + \delta X_i + \zeta Z_i + \epsilon_i \end{aligned} \quad (2)$$

where

$$\begin{aligned} y &= 1 \text{ if } y_i^* > 0 \\ y &= 0 \text{ if } y_i^* \leq 0 \end{aligned}$$

여기에서 y_i^* 는 잠재 변수(latent variable)로서 관찰되지 않는 변수를 나타내고 있는데, 만일 양의 값을 갖는다면 y 는 1이 되고, 음 또는 0의 값을 갖는다면 0이 된다. Z_i 는 취업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자녀 수, 남편 소득, 집의 소유형태를 도입한다. 식 (2)를 추정하여 IMR(Inverse Mill's Ratio)을 도출하고, 이것을 식 (1)에 도입하여 추정한다. 따라서 식 (1)을 다시 쓰면,

$$\log Y_i = \beta_0 + \beta_1 Edu_i + \beta_2 Exp_i + \beta_3 Exp_i^2 + \beta_4 YSM_i + \beta_5 YSM_i^2 + \gamma Job_i + \delta X_i + \eta \hat{\lambda}_i + \epsilon_i \quad (1)'$$

이 되고 λ (IMR)의 계수(η)값이 유의하면 선택 편이가 존재하는 것으로 OLS 추정보다 2단계 추정이 타당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나. 변수 설명

본 연구의 종속변수인 임금은 ‘지난 3개월(2012. 4. 1-6. 30)동안 주된 직장(일)에서 받은(세금 공제 전) 월평균 임금 또는 보수는 얼마였습니까?’라는 질문에 ‘50만 원 미만’부터 50만 원 간격으로 ‘700만 원 이상’의 총 15개 카테고리로 응답을 하고 있는 변수로, 각 카테고리의 중간 값, 예를 들어 ‘50-100 만원 미만’일 경우는 ‘75 만 원’과 같은 방법으로 구성하였다⁴⁾. 그러나 이 변수는 근무시간이 고려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근무시간이 많을 경우 임금이 증가하는 경향을 갖게 된다. 따라서 임금을 근무시간으로 나눈 시간당 임금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여 두 결과를 비교한다.⁵⁾

설명변수는 식 (1)에서 나타낸 바와 같이 교육연수, 직무경험연수, 한국 체류기간, 직종, 그 외의 컨트롤 변수로 구성되어 있다. 교육연수는 교육의 수익(return to schooling, β_1)을 추정하기 위한 변수로 무학의 0년부터 대학원졸 이상의 18년으로 구성하였다.⁶⁾ 이민자의 임금합수 추정에 관한 선행연구에서는 모국에서 취득한 학력과 이민국에서 취득한 학력으로 나누고 있지만(Chiswick, 1978; Friedberg, 2000; Sanromá et al., 2009), 본 연구의 결혼이민자들은 그들의 출신 국가에서 교육을 마치고 온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이 학력 변수는 모국에서 취득한 인적자본 요인이라고 가정할 수 있다.

한국어 능력변수는 예비 분석(preliminary estimation)에서 여성결혼이민자들의 국적 변

4) 단, ‘50만 원 미만’은 50만 원, ‘700만 원 이상’은 700만 원으로 구성하였다.

5) 다문화조사에서는 지난 일주일간의 평균 근무시간을 조사하고 있어 3개월 평균인 임금과 괴리가 있지만, 시간당 임금을 계산하여 분석하는 것도 그 영향의 대체적 경향을 보기 위한 기초적 자료로서는 충분한 가치가 있을 것이라고 판단된다. 그리고 한 달 평균 근무시간은 일주일간 평균 근무시간*4.2로 계산하였다.

6) 석사 또는 박사인지에 따라 교육연수에 차이가 있음에도 18년이라는 일정한 연수를 도입하는 것은 분석결과가 과소추정(under-estimated)될 위험성이 있지만, 총 샘플에서 그들이 접하는 비율이 1% 내외이기 때문에 이에 따른 과소추정의 위험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이라 생각된다.

수와 큰 상관성이 존재하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기 때문에,⁷⁾ 기본 모델에서는 도입하지 않지만 중요한 인적자본 요인 중의 하나이기 때문에 다른 모델에서 추정한다.⁸⁾ 한국어 능력 변수는 “당신의 한국어 실력은 어느 정도입니까?”라는 큰 질문의 하위에 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에 대하여 자신이 생각하고 있는 수준을 5개의 척도(‘매우 잘 한다’ - ‘매우 못 한다’)로 응답하고 있는 것을 복합 점수로 변환시켰다. 즉, 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의 4개 영역을 합산한 점수를 산출하였는데, 최저 점수는 이 4개 영역을 전부 ‘매우 못 한다’라고 응답한 경우로 4점이고, 최고 점수는 20점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건강은 결혼이민자 여성 본인이 생각하는 건강상태로서 ‘1’의 ‘매우 좋다’에서 ‘5’의 ‘매우 나쁘다’의 5개 척도로 되어 있으며, ‘1’의 ‘매우 좋다’와 ‘2’의 ‘좋다’를 통합하여 건강이 좋다고 정의하였다⁹⁾.

본 연구에서의 직무경험은 모국에서의 직무경험과 우리나라에서의 직무경험으로 나누었다. 그러나 다문화조사에서는 직무경험에 대한 정보가 없기 때문에, 잠재직무경험(potential labor market experience)을 계산하였는데, 모국에서의 잠재직무경험은 이주한 연령을 고려하여 계산하였다¹⁰⁾.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결혼이민자들은 대부분 모국에서 교육을 마치고 오기 때문에 이민국에서의 잠재직무경험은 곧 이민국에서의 체류기간과 동일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분석에서는 한국에서의 체류기간을 한국에서의 잠재 직무경험으로 가정한다.

-
- 7) 이러한 상관성은 한국어에 능통한 중국 출신 조선족 여성결혼이민자의 영향일 가능성이 크다.
 8) 그러나 언어능력은 이민자의 소득과 내생성이 있다고 여러 연구에서 밝히고 있으며(Angrist & Lavy, 1997; Bleakley & Chin, 2004; Chiswick & Miller, 1995, 2010; Dustmann & Van Soest, 2002), 이러한 연구에서는 언어능력의 내생성을 제거하여 이민자의 소득에 대하여 추정을 하고 있다. 그 중 Bleakley and Chin(2004)의 연구에서는 OLS 추정은 도구변수(instrumental variable)에 의한 추정보다 과소추정된다고 보고하고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본 연구에서도 언어능력의 내생성을 제거하여 분석해야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여성결혼이민자라는 우리나라의 특수한 계층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그들의 선택 편의를 우선 고려하기 위하여 언어 능력과 소득과의 내생성에 대한 분석은 향후 연구 문제로 남겨둔다.
 9) 건강과 소득 사이에도 소득이 높아질수록 건강에 대한 수요가 커질 수 있는 내생적인 관계가 존재하는데, Lee(1982)의 연구에서는 건강과 소득 사이의 내생성을 제거하기 위해 구조 방정식(structural equation)을 이용하여 건강과 임금과의 관계에 대하여 분석하였으며, 그 결과 건강과 임금은 서로 매우 강한 상관성이 있다는 것이 다시금 확인되었다. 이러한 결과를 고려하면, 본 연구의 건강 변수도 소득과 내생성이 있다고 할 수 있는데, 앞의 각주 8)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선택 편의를 우선적으로 고려하기 위하여 건강 변수의 내생성에 대한 분석은 향후 연구 문제로 남겨둔다.
 10) 일반적으로 잠재직무경험은 ‘연령-교육연수-5’로 계산되는데(Chiswick, 1978), 본 연구에서는 모국에서의 잠재직무경험을 도입하기 때문에, ‘이주 연령-교육연수-5’로 계산하였다.

정규직 여부는 정규직인지 아닌지를 나타내는 변수이고, 직종은 6가지 종류로 관리 및 전문가·사무, 서비스, 판매,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장치·기계 조작 및 조립, 단순노무직으로 나누었다. 출신 국적은 우리나라에 들어온 여성결혼이민자의 비율을 고려하여 중국(한족, 조선족), 베트남, 필리핀, 기타 아시아 및 그 외의 나라로 구성하였으나, 북미·유럽 지역 국가와 일본 출신 여성은 동남아 등의 출신 여성과 그 성격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제외하였다.¹¹⁾ 도시거주 여부는 도시에 거주하는지의 여부를 나타내며, 1의 값을 가지면 도시에 거주하는 것을 의미한다.

자녀 수, 남편 소득, 집의 소유형태는 취업 여부의 1단계 probit 추정에서만 사용되는 변수로서, 자녀수는 학교급에 따라서 학령기 이전의 6세 미만, 학령기 중 초등학생인 6-12세 미만, 중고등학생인 12-18세 미만, 그리고 대학생 이상인 18세 이상으로 나누었다. 그리고 남편 소득은 각 카테고리별 응답 비율을 고려하여 ‘150만 원 미만’, ‘150-200만 원 미만’, ‘200-250만 원 미만’, ‘250만 원 이상’의 4단계로 구분하였고, 집의 소유형태는 ‘월세’, ‘전세’, ‘자갸’로 나누었다.

<표 1>은 앞에서 언급한 설명변수의 전체 및 여성결혼이민자의 출신 국적별 기술통계량을 나타내고 있다. 전체 결혼이민자들의 교육연수는 평균 11.5년이며, 국적별로는 필리핀이 13.3년으로 가장 높고, 베트남이 9.6년으로 가장 낮다. 한국어 능력은 중국 출신 조선족이 가장 높고, 교육연수와 마찬가지로 베트남이 가장 낮은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반대로 건강이 좋다고 느끼는 비율은 베트남이 가장 많고, 중국 출신 조선족이 가장 적다. 모국 잠재직무경험은 중국 출신 여성결혼이민자(한족, 조선족)들이 많은 경향이 있으며, 그 이외의 국가들은 중국의 절반 정도라는 것을 알 수 있다. 한국 체류기간은 전체 평균이 7.6년으로 중국 출신 조선족이 가장 길고, 5.1년의 베트남이 가장 짧은 것을 알 수 있다.

직종을 살펴보면, 전체적으로는 단순노무직의 비율이 가장 크며(33.8%), 그 중에서도 베트남의 비율이 40.9%로 가장 크다. 관리 및 전문·사무직은 필리핀이 35.6%로 다른 국가 출신 여성결혼이민자에 비하여 많은 편이며¹²⁾, 서비스 분야는 중국 출신이 많은 경향이 있다. 자녀수를 보면, 12세 미만의 자녀가 많은 경향이 있으며, 남편 소득이 200

11) 북미·유럽 국가는 북미(미국, 캐나다), 서유럽/대양주를 의미한다.

12) 관리 및 전문·사무직의 대부분은 전문직이며(관리직:0.7%, 전문직: 76.2%, 사무직: 23.1%), 또한 전문직의 대부분은 언어 강사 및 통·번역 등의 언어와 관련된 직업으로 추정된다. 장명선·이옥경(2009)은 서울지역으로 한정시키고 있으나, 강사·교사직은 필리핀 출신 여성결혼이민자들에 많이 분포하며, 이들은 근로시간이 짧은 아르바이트 형식으로 일을 하고 있다고 보고하고 있다.

만원 미만)이 약 60%를 차지하고 있다. 그리고 집의 소유형태는 자가의 비율이 가장 높은 것을 알 수 있고, 약 64%가 도시에 거주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표 1〉 기술통계량

변수명	전체	중국(한족)	중국(조선족)	베트남	필리핀	기타
교육연수	11.513 (3.039)	11.211 (2.754)	11.277 (2.448)	9.576 (3.006)	13.314 (2.378)	12.271 (3.280)
한국어 능력	14.144 (4.248)	14.682 (4.667)	17.662 (3.289)	11.827 (3.152)	12.430 (3.219)	13.144 (3.694)
건강(좋은=1)	0.660	0.637	0.601	0.730	0.679	0.674
모국 잠재 직무경험연수	11.171 (9.053)	15.707 (10.292)	15.684 (9.987)	7.056 (5.419)	7.408 (5.945)	8.233 (6.643)
한국 체류기간	7.597 (4.347)	7.316 (4.437)	9.401 (4.277)	5.069 (2.637)	8.756 (4.604)	7.248 (4.153)
정규직 여부(=1)	0.372	0.374	0.376	0.340	0.386	0.379
직종						
관리 및 전문·사무	0.166	0.137	0.107	0.044	0.356	0.216
서비스	0.180	0.271	0.301	0.108	0.070	0.105
판매	0.044	0.049	0.065	0.021	0.022	0.053
기능원 및 관련 기능	0.084	0.048	0.043	0.160	0.065	0.112
장치·기계조작 및 조립	0.187	0.174	0.158	0.257	0.181	0.180
단순노무 †	0.338	0.322	0.325	0.409	0.306	0.334
자녀수						
5세 미만	0.472 (0.667)	0.255 (0.504)	0.221 (0.483)	0.864 (0.710)	0.535 (0.728)	0.581 (0.702)
6-12세 미만	0.320 (0.606)	0.211 (0.491)	0.265 (0.529)	0.162 (0.423)	0.677 (0.834)	0.353 (0.613)
12-18세 미만	0.137 (0.427)	0.119 (0.370)	0.176 (0.471)	0.054 (0.290)	0.186 (0.509)	0.147 (0.449)
18세 이상	0.080 (0.329)	0.135 (0.419)	0.157 (0.452)	0.020 (0.171)	0.018 (0.171)	0.039 (0.229)
남편 소득						
150만 원 미만 †	0.359	0.347	0.338	0.381	0.415	0.342
150~200만 원 미만	0.258	0.243	0.293	0.309	0.271	0.247
200~250만 원 미만	0.185	0.206	0.176	0.177	0.179	0.211
250만 원 이상	0.198	0.204	0.193	0.133	0.135	0.199
집의 소유형태						
월세 †	0.300	0.334	0.302	0.245	0.319	0.295
전세	0.219	0.263	0.251	0.183	0.159	0.215
자가	0.481	0.403	0.446	0.571	0.522	0.490
도시거주 여부(=1)	0.641	0.704	0.689	0.527	0.570	0.667
Observations	3,509	754	784	611	542	818

주: † 는 준거변수, ()는 표준편차를 나타냄.

Ⅲ. 분석 결과

1. 전체 추정

가. 기본 임금함수 추정

<표 2>는 여성결혼이민자 전체의 임금함수를 추정한 결과로, 왼쪽 모델은 총임금을 추정한 것이며, 오른쪽 모델은 시간당 임금을 추정한 것이다. 지면 관계로 t-값(t-value)은 생략하고 유의성의 수준만을 별표(asterisk)로 표시하고 있다(이하 동일). 주요한 결과를 언급하기 전에 추정된 모델이 적합한지 아닌지 λ 의 계수(η)를 보면, 총임금의 경우에 유의한 결과를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여성결혼이민자의 총임금을 추정할 때는 OLS 추정보다 2단계 추정이 더욱 적합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반면, 시간당 임금 추정은 유의하지 않기 때문에 OLS 추정으로도 큰 문제가 없다고 할 수 있겠다.¹³⁾

추정 결과를 살펴보면, 교육연수는 유의하게 임금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이것은 두 모델 모두에서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다. 그 효과를 보면, 교육연수가 1년 증가하면 임금은 1.0-1.3%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 결과는 미국 이주노동자의 임금함수를 추정한 Chiswick(1978)의 5.7%, 이스라엘의 7.6%에 비하면 작은 수준이나(Friedberg, 2000), 스페인 이주노동자의 임금함수를 추정한 Sanromá et al.(2009)의 1.8%와 비슷한 수준인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 추정치들은 남성 또는 남성과 여성이 혼재하고 있는 결과로서, Chiswick(1978)과 동일한 방법으로 미국의 여성 이주자에 대한 임금함수를 추정한 Long(1980)은 학력의 효과를 3.9%로 추정하고 있다. 이러한 경향으로 볼 때 우리나라에 이주한 여성결혼이민자의 학력에 의한 임금 프리미엄은 다른 나라에 비하여 그다지 큰 편은 아니라고 할 수 있지만,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여성결혼이민자들은 대부분 모국에서 학업을 마치고 오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학력을 모국에서 축적한 인적자본이라고 생각하면, 여성결혼이민자들이 그들의 모국에서 취득한 학력은 우리나라 노동시장에서 긍정적인 방향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건강은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지 않으며, 모국의 잠재 직무경험연수를 보면, Friedberg(2000)와 Sanromá et al.(2009)의 연구에서는 양의 유의한 영향을 임금에 미치고

13) 1단계 추정의 결과는 <부표 1>과 <부표 2>를 참조하시오.

있으나, 본 분석에서는 유의한 영향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반면, 한국에서의 잠재 직무경험 대리변수로 도입한 한국 체류기간이 길수록 임금이 유의하게 감소하며, 그 효과는 비선형성을 띄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것은 곧 한국에서의 잠재직무경험이 임금에 부정적인 작용을 한다고 할 수 있으나, 이 분석에서의 임금은 총임금이기 때문에, 노동시간에 의한 편향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즉, 입국 초기에 일을 많이 하고 시간이 지날수록 일을 적게 하는 경향이 있을 수 있으며, 그렇게 되면 체류기간과 총임금이 음의 관계에 있을 가능성이 있다. 반면, 시간당 임금에 미치는 영향은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대부분 유의한 결과를 보고하고 있는 선행연구와 차이가 있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 그리고 정규직일 경우 총임금에는 유의한 양의 영향을 미치고 있으나, 시간당 임금에는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지 않다.

〈표 2〉 여성결혼이민자의 임금함수 추정결과: 기본모델

변수명	총임금	시간당 임금
교육연수	0.010**	0.013**
건강(좋은=1)	0.019	0.012
모국 잠재 직무경험연수/100	-0.003	-0.416
모국 잠재 직무경험연수 제곱/100	0.005	0.017*
한국 체류기간	-0.033**	0.002
한국 체류기간 제곱	0.001**	0.000
정규직 여부(=1)	0.227**	0.029
직종(Ref. 단순노무)		
관리 및 전문·사무	0.140**	0.633**
서비스	0.070**	0.042
판매	0.043	0.081*
기능원 및 관련 기능	0.055*	0.015
장치·기계조작 및 조립	0.089**	0.037
국적(Ref. 기타 아시아 및 그 외)		
중국(한족)	0.084**	0.035
중국(조선족)	0.110**	0.042
베트남	-0.057*	-0.021
필리핀	-0.102**	0.084**
도시거주 여부(=1)	0.045**	0.019
상수항	4.555**	-0.926**
λ	-0.177**	0.032
Adjusted R^2	0.165	0.244
Observations	3,509	3,465

주: * $p < 0.05$, ** $p < 0.01$.

다음으로 직종을 보면, 판매직을 제외한 다른 모든 직종이 단순노무직에 비하여 총임금이 높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으나, 시간당 임금을 추정한 결과는 총임금 추정에서 유의하지 않았던 판매직이 임금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즉, 판매직의 시간당 임금은 단순노무직보다 높은 수준이지만 총임금은 큰 차이가 없다는 것이며, 이것은 단순노무직의 노동시간이 판매직보다 많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국적별로 보면, 기타 아시아 및 그 외 국가에 비하여 중국 출신(한족, 조선족)의 총임금은 높고, 베트남과 필리핀의 임금은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반면, 시간당 임금의 추정 결과에서는 필리핀을 제외하고 유의성이 모두 사라진 것을 볼 수 있다. 결국, 여성결혼이민자들의 국적별 임금의 차이는 노동시간에 따른 차이로 해석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중국 출신 여성결혼이민자들의 노동시간이 길다는 것이며, 모든 국가 여성결혼이민자간의 시간당 노동생산성 차이는 없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필리핀은 총임금 추정에서 음의 영향을 미치고 있는 반면, 시간당 임금 추정에서는 양의 유의한 영향이 있다는 것은 그들의 노동시간이 다른 직종보다 총임금이 작을 정도로 짧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각주 12)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그들의 취업형태가 언어 관련 직업으로서 시간당 임금은 높겠지만, 노동시간이 짧은 아르바이트 형태가 대부분이라는 것을 재확인해 주는 결과라 할 수 있겠다. 마지막으로 도시거주 여부를 보면, 도시에 거주할수록 임금이 증가하는 반면, 시간당 임금의 추정은 유의한 영향이 없는 것으로 볼 때, 국적과 마찬가지로 도시에서 일하는 여성결혼이민자들이 더욱 많이 일을 한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나. 인적자본요인과 직종에 따른 임금

<표 3>은 인적자본 요인과 직종과의 교차항을 도입한 결과를 나타내고 있는데, 이 결과에는 <표 2>의 변수들이 통제되어 있다. 그리고 λ 의 계수는 <표 2>와 같이 총임금 추정에서는 유의하지만, 시간당 임금 추정에서는 유의하지 않은 것을 보여주고 있다. 추정 결과의 교육연수와 직종과의 교차항을 보면, 관리 및 전문·사무직은 교육연수가 높아지면 단순노무직에 비하여 임금이 4% 증가하는 것을 나타내고 있으나, 그 외의 서비스, 기능원 및 관련 기능직, 장치·기계 조작 및 조립직은 교육연수의 증가와는 무관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시간당 임금을 추정한 결과는 총임금 추정에서 유의했던 관리 및 전문·사무직에 대하여 서비스직에서도 유의하게 나타나고 있다. 즉, 관리 및 전문·사무직의 경우, 교육

〈표 3〉 여성결혼이민자의 임금함수 추정결과: 인적자본요인과 직종과의 교차항

변수명	총임금	시간당 임금
교차항		
교육연수		
관리 및 전문·사무	0.041**	0.063**
서비스	0.006	0.025**
판매	-0.012	0.002
기능원 및 관련 기능	-0.003	0.007
장치·기계조작 및 조립	-0.002	-0.007
모국 잠재 직무경험연수		
관리 및 전문·사무	-0.003	0.002
서비스	0.005*	-0.001
판매	-0.005	0.004
기능원 및 관련 기능	-0.002	0.003
장치·기계조작 및 조립	-0.001	0.001
한국 체류기간		
관리 및 전문·사무	0.010*	0.018**
서비스	-0.001	-0.003
판매	0.009	0.010
기능원 및 관련 기능	0.008	0.004
장치·기계조작 및 조립	0.001	0.005
상수항	4.649**	-0.721**
λ	-0.184**	0.015
Adjusted_R ²	0.177	0.258
Observations	3,509	3,465

주: 1) <표 2>의 변수들이 통제되어 있음.

2) * p<0.05, ** p<0.01.

연수가 1년 증가할수록 단순노무직보다 임금이 6.3% 증가하며, 서비스직은 2.5% 증가한다고 할 수 있다.

다음으로 모국 잠재 직무경험연수의 결과를 보면, 총임금 추정 결과에서는 서비스직만이 유의하게 증가하고 있으며, 시간당 임금의 경우에는 유의한 영향이 없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 그리고 한국 체류기간을 보면, 관리 및 전문·사무직만이 총임금과 시간당 임금 모두 유의하게 증가하며, 단순노무직에 비하여 각각 1.0%, 1.8% 임금이 증가하고 있다.

다. 잠재 직무경험연수에 따른 임금

<표 2>의 결과에서 한국에 이주한 여성결혼이민자가 모국에서 축적한 잠재직무경험은 임금에 유의한 영향이 없었고, 한국에서의 체류기간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었는데, 이러한 경향은 한국에서의 체류기간에 따라서 달라질 가능성이 있다. 그 이유는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입국 초기에는 일을 많이 하다가 그 이후에 일을 적게 하는 경향이 있을 수 있고, 이것은 곧 체류기간과 총임금이 음의 관계에 있다는 것을 의미하게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러한 영향을 상세하게 살펴보기 위하여 한국 체류기간을 나누어 추정하였다.

<표 4> 여성결혼이민자의 임금함수 추정결과: 체류기간 구분

변수명	총임금		시간당 임금	
	model1	model2	model3	model4
교육연수	0.013**	0.009*	0.009	0.028**
건강(좋은=1)	0.021	0.025	0.024	0.005
모국 잠재 직무경험연수/100	0.804*	-0.887**	-0.548	0.193
모국 잠재 직무경험연수 제곱/100	-0.016	0.032**	0.019	0.005
한국 체류기간	-0.057	-0.037**	0.006	0.010
한국 체류기간 제곱	0.005	0.001**	-0.002	0.000
정규직 여부(=1)	0.220**	0.251**	0.044	-0.021
직종(Ref. 단순노무)				
관리 및 전문·사무	0.120**	0.150**	0.660**	0.691**
서비스	0.068*	0.084**	0.041	0.033
판매	-0.019	0.089*	-0.041	0.109
기능원 및 관련 기능	0.031	0.098*	0.001	-0.003
장치·기계조작 및 조립	0.085**	0.098**	0.027	0.047
국적(Ref. 기타 아시아 및 그 외)				
중국(한족)	0.108**	0.078**	0.015	0.000
중국(조선족)	0.152**	0.119**	0.068	0.013
베트남	-0.025	-0.052	-0.055	0.015
필리핀	-0.040	-0.098**	0.099*	0.021
도시거주 여부(=1)	0.040	0.071**	0.034	0.012
상수항	4.410**	4.582**	-0.822**	-1.261**
λ	-0.133**	-0.165**	0.015	0.099
Adjusted_R ²	0.147	0.162	0.213	0.245
Observations	933	2,158	926	2,126

주: 1) model1, model3은 6년 미만, model2, model4는 6년 이상 한국에 체류한 여성

* p<0.05, ** p<0.01.

추정 결과는 <표 4>에 나타나고 있으며, 기간은 한국에 체류한지 6년 미만인 여성(model1, model3)과 그 이상 체류한 여성으로 나누었다(model2, model4). λ 의 계수는 <표 2>, <표 3>에서와 마찬가지로 총임금 추정에서는 유의하지만, 시간당 임금 추정에서는 유의하지 않은 것을 보여주고 있다. 추정 결과를 살펴보면, 한국에 체류한지 6년 미만의 여성은 모국 잠재 직무경험연수가 길수록 총임금이 증가하고 있으나, 시간당 임금은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지 않다. 그리고 한국 체류 6년 이상의 여성은 체류기간이 총임금에 유의하게 음의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모국 잠재 직무경험연수 또한 음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반면, 시간당 임금에는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고 있다. 이러한 결과를 종합해 보면, 여성결혼이민자들은 모국에서 직무경험이 많은 여성일수록 입국 초기 한국에서 오랜 시간 일을 하며, 그 이상이 되면 점점 일하는 시간을 줄여나가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며, 입국 후 일정 기간 이상이 되면 모국 잠재직무경험이 많은 여성도 노동시간을 줄이는 경향이 있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고 할 수 있다¹⁴⁾.

라. 한국어 능력에 따른 임금

한국어 능력은 변수 설명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국적 변수와 상관성이 있기 때문에, 국적 변수를 도입한 모델과 도입하지 않은 모델, 그리고 한국어 능력과 직종이 임금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기 위하여 교차항을 도입한 모델로 추정하며, <표 5>는 그 추정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λ 의 계수는 앞의 결과와는 다르게 시간당 임금 추정에서도 유의한 영향을 나타내고 있다.

추정결과를 살펴보면, model1의 한국어 능력은 임금에 음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국적 변수를 제외한 model2에서는 유의한 영향이 사라졌으며 그 방향성은 양으로 바뀌었다. 그리고 직종과의 교차항을 도입한 model3에서는 시간당 임금 추정에서 관리 및 전문·사무직이 유의한 음의 영향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일련의 결과는 선행연구의 결과와는 다른 경향을 나타내고 있으며, 그 이유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한국어 능력의 내생성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내생성 이외에 또 하나 문제가 되는 것은 측정오차(measurement error)이다. 다문화조사의 한국어 능력

14) 입국 5년 미만인 경우도 추정하였으나 모국 잠재직무경험 효과가 유의하지 않았으며, 결과에서는 제시하고 있지 않지만 5년 이상인 경우부터 모국 잠재 직무경험연수 변수가 유의하였기 때문에 여기에서 일정 기간은 5-6년 이상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은 모두 자신이 평가하도록 되어 있는데(self-assessed), 이것은 측정오차를 일으킬 수 있으며, Dustmann and Van Soest(2002)는 이러한 측정오차가 언어능력의 효과를 과소 추정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또한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Bleakley and Chin(2004)도 언어 능력의 내생성으로 그 영향이 과소 추정된다고 하고 있다. 본 분석의 결과는 언어능력의 내생성과 측정오차 문제로 인하여 한국어 능력의 효과에 편의가 생겼을 가능성이 존재한다.

〈표 5〉 여성결혼이민자의 임금합수 추정결과: 한국어 능력

변수명	총임금			시간당 임금		
	model1	model2	model3	model3	model2	model3
교육연수	0.010**	0.012**	0.012**	0.013**	0.017**	0.016**
한국어 능력	-0.006**	0.003	0.001	-0.003	-0.002	0.002
건강(좋은=1)	0.023	0.023	0.024	0.014	0.014	0.018
모국 잠재 직무경험연수/100	-0.071	0.508*	0.507*	-0.450	-0.264	-0.284
모국 잠재 직무경험연수 제곱/100	0.007	0.003	0.004	0.018*	0.017*	0.016*
한국 체류기간	-0.029**	-0.023**	-0.023**	0.004	0.007	0.004
한국 체류기간 제곱	0.001**	0.001**	0.001**	0.000	0.000	0.000
정규직 여부(=1)	0.229**	0.232**	0.232**	0.031	0.031	0.033*
직종(Ref. 단순노무)						
관리 및 전문·사무	0.143**	0.129**	0.063	0.636**	0.645**	1.177**
서비스	0.072**	0.100**	0.025	0.044	0.048*	0.118
판매	0.047	0.072*	0.252*	0.084*	0.087*	0.142
기능원 및 관련 기능	0.055*	0.044	-0.033	0.015	0.008	-0.101
장치·기계조작 및 조립	0.086**	0.096**	0.067	0.034	0.036	-0.003
국적(Ref. 기타 아시아 및 그 외)						
중국(한족)	0.095**			0.041		
중국(조선족)	0.134**			0.057*		
베트남	-0.059**			-0.022		
필리핀	-0.108**			0.080**		
도시거주 여부(=1)	0.045**	0.057**	0.056**	0.020	0.019	0.018
한국어 능력*직종 교차항						
관리 및 전문·사무			0.005			-0.036**
서비스			0.005			-0.005
판매			-0.011			-0.004
기능원 및 관련 기능			0.006			0.008
장치·기계조작 및 조립			0.002			0.003
λ	4.606**	4.332**	4.360**	-0.898**	-0.965**	-0.997**
Adjusted_R ²	-0.180**	-0.117**	-0.118**	0.034	0.042	0.033
Observations	0.166	0.138	0.138	0.170	0.141	0.141

주: 1) model1, model3은 6년 미만, model2, model4는 6년 이상 한국에 체류한 여성

* p<0.05, ** p<0.01.

2. 출신 국적별 추정

가. 기본 임금함수 추정

<표 6-1>과 <표 6-2>는 <표 2>를 국적별로 재추정한 것이며, <표 6-1>은 총임금, <표 6-2>는 시간당 임금을 추정한 것이다. λ 의 계수는 중국 출신 조선족(총임금)과 베트남(총임금과 시간당 임금), 기타 아시아 및 그 외 국가(총임금)의 임금함수 추정에서 유의한 영향을 나타내고 있다. 추정 결과를 보면, 교육연수는 중국 출신 조선족과 기타 아시아 및 그 외 국가 출신 여성결혼이민자의 임금을 유의하게 증가시키고 있으며, 그 영향은 각각 2.0%, 1.5%로 나타나고 있어, 전체 효과보다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이 결과는 시간당 임금일 경우에도 동일한 결과를 나타내고 있는데, 임금에 미치는

<표 6-1> 여성결혼이민자의 출신국가별 임금함수 추정결과(총임금): 기본 모델

변수명	중국(한족)	중국(조선족)	베트남	필리핀	기타 ¹⁾
교육연수	-0.004	0.020**	0.007	-0.003	0.015**
건강(좋은=1)	0.031	-0.021	0.057	-0.002	0.044
모국 잠재 직무경험연수/100	0.362	-0.239	0.700	-1.229	0.252
모국 잠재 직무경험연수 제곱/100	-0.008	0.011	-0.053	0.038	0.014
한국 체류기간	-0.014	-0.010	-0.038*	-0.049*	-0.024
한국 체류기간 제곱	0.000	0.000	0.002	0.002**	0.002**
정규직 여부(=1)	0.204**	0.202**	0.192**	0.261**	0.262**
직종(Ref. 단순노무)					
관리 및 전문·사무	0.231**	0.095	-0.005	0.081*	0.199**
서비스	0.106**	0.076*	0.068	-0.016	0.023
판매	0.010	0.042	0.125	0.062	0.090
기능원 및 관련 기능	0.074	0.034	0.083*	0.123	0.012
장치·기계조작 및 조립	0.153**	0.060	0.067*	0.105*	0.075
도시거주 여부(=1)	0.051	0.055	0.053*	0.034	-0.009
상수항	4.661**	4.592**	4.512**	4.764**	4.285**
λ	-0.117	-0.286**	-0.181**	-0.167	-0.132*
Adjusted_R ²	0.109	0.112	0.123	0.124	0.172
Observations	754	784	611	542	818

주: 1) 기타 아시아 및 그 이외의 국가를 지칭함.

* p<0.05, ** p<0.01.

〈표 6-2〉 여성결혼이민자의 출신국가별 임금함수 추정결과(시간당 임금): 기본 모델

변수명	중국(한족)	중국(조선족)	베트남	필리핀	기타1)
교육연수	0.014	0.035**	-0.005	0.019	0.019**
건강(좋은=1)	0.021	0.023	0.046	-0.025	0.027
모국 잠재 직무경험연수/100	-1.242*	-0.277	-0.103	-1.912	0.232
모국 잠재 직무경험연수 제곱/100	0.035**	0.018	-0.020	0.078	0.008
한국 체류기간	0.017	0.013	-0.039	-0.016	0.007
한국 체류기간 제곱	-0.001	0.000	0.002	0.001	0.001
정규직 여부(=1)	0.060	0.061	0.107**	-0.063	0.016
직종(Ref. 단순노무)					
관리 및 전문·사무	0.410**	0.338**	0.490**	0.885**	0.632**
서비스	0.079	-0.013	0.038	0.138	0.028
판매	-0.022	0.112	0.091	-0.068	0.105
기능원 및 관련 기능	0.133	0.035	-0.026	0.089	-0.014
장치·기계조작 및 조립	0.096	0.059	-0.030	0.003	0.041
도시거주 여부(=1)	0.038	-0.008	-0.021	0.072	-0.022
상수항	-0.952**	-1.198**	-0.464**	-0.935*	-1.104**
λ	0.113	0.118	-0.176**	0.113	0.077
Adjusted_R ²	0.132	0.115	0.082	0.427	0.259
Observations	744	775	608	534	804

주: 1) 기타 아시아 및 그 이외의 국가를 지칭함.

* p<0.05, ** p<0.01.

효과는 중국 출신 조선족 여성결혼이민자가 3.5%, 기타 아시아 및 그 외 국가 출신이 1.9%로 총임금에 미치는 영향보다 큰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모국 잠재직무경험은 총임금 추정 결과에서는 유의한 결과가 없지만, 시간당 임금 추정에서는 중국 출신 한족 여성결혼이민자에게서만 음의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그 영향은 비선형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중국 출신 한족 여성결혼 이민자의 경우, 모국에서의 직무경험이 한국 노동시장에서 인정이 되지 않으며, 더 나아가서는 페널티까지 받게 되는 경향이 있다고 볼 수 있다. 즉, 그들은 한국에서 모국보다 생산성이 낮은 직종에 종사하고 있는 경향이 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한국 체류기간은 총임금 추정에서만 베트남과 필리핀 출신 여성결혼이민자의 임금에

음의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데, 한국에서의 생활이 길어질수록 노동시간이 감소하는 경향이 있는 여성은 베트남과 필리핀이라고 할 수 있다.

여성결혼이민자의 임금에 미치는 영향을 직종별로 살펴보면, 단순노무직과 비교하여 관리 및 전문직·사무직의 경우 중국 출신 한족, 필리핀, 기타 아시아 및 그 외 국가 출신 여성, 서비스직은 중국(한족, 조선족) 출신 여성, 기능원 및 관련 기능직은 베트남 출신 여성, 장치·기계 조작 및 조립직은 중국 출신 한족과 베트남 출신 여성결혼이민자의 임금에 양의 영향을 미치고 있다. 반면, 시간당 임금은 관리 및 전문직·사무직의 경우에 모든 국가 여성에 있어서 양의 유의한 영향이 있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 마지막으로 도시에 거주할수록 베트남 출신 여성결혼이민자에서만 총임금이 유의하게 증가하지만, 시간당 임금은 유의한 영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나. 인적자본과 직종에 따른 임금

<표 7>은 <표 3>에서 추정한 인적자본 요인과 직종의 교차항을 출신 국적별로 재추정한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이 결과도 마찬가지로 <표 6-1>에서 도입된 모든 변수들이 통제되어 있다. λ 의 계수는 베트남만이 총임금과 시간당 임금 추정에서 유의한 반면, 중국(한족, 조선족)은 총임금 추정에서만 유의한 영향을 보여주고 있다.

먼저 교육연수의 결과를 살펴보면, 단순노무직과 비교하여 관리 및 전문·사무직은 중국 출신 조선족 여성을 제외하고 모든 국가에서 임금에 양의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시간당 임금 추정에서는 중국 출신 조선족 여성도 양의 유의한 영향이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관리 및 전문·사무직의 경우, 교육에 의한 효과는 총임금 추정에서는 중국 한족 여성이 8.1%로 가장 크고, 시간당 임금 추정에서는 베트남 여성이 10.8%로 가장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중국 출신 조선족 여성은 서비스직의 경우에도, 교육연수가 증가할수록 시간당 임금이 유의하게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다.

모국 잠재 직무경험은 중국 출신 조선족 여성결혼이민자의 경우, 단순 노무직과 비교하여 관리 및 전문·사무직과 장치·기계 조작 및 조립직이 유의하게 음의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시간당 임금에서는 기타 아시아 및 그 외 국가 출신 여성의 판매직에서 유의하게 양의 영향을 미치고 있다. 반면, 한국 체류기간은 중국 출신 한족 여성의 관리 및 전문·사무직에서 양의 영향, 시간당 임금 추정에서 기타 아시아 및 그 외 국가 출신 여성의 경우 관리 및 전문·사무직에서 양의 영향, 필리핀 출신 여성은 음의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

<표 7> 여성결혼이민자 출신 국가별 임금합수 추정결과: 인적자본 요인과의 교차항

변수명	총임금					시간당 임금				
	중국 (한족)	중국 (조선족)	베트남	필리핀	기타 ¹⁾	중국 (한족)	중국 (조선족)	베트남	필리핀	기타 ¹⁾
교차항										
교육연수										
관리 및 전문·사무	0.081**	0.001	0.077*	0.054**	0.035*	0.096**	0.091**	0.108**	0.010	0.029
서비스	0.021	-0.007	0.008	0.040	0.003	0.022	0.044*	0.013	0.034	0.019
판매	0.006	-0.004	-0.021	-0.008	-0.011	-0.023	0.061	0.079	-0.059	-0.017
기능원 및 관련 기능	-0.036	-0.001	-0.007	0.045	0.004	-0.004	-0.011	0.014	0.000	-0.012
장치·기계조작 및 조립	-0.007	-0.016	0.015	0.010	-0.011	-0.006	0.001	0.011	-0.034	-0.008
모국 잠재 직무경험연수										
관리 및 전문·사무	0.013	-0.024**	0.011	0.001	0.006	0.016	-0.003	0.050	-0.004	0.017
서비스	0.006	0.000	-0.003	0.015	0.004	0.002	0.004	-0.023	0.001	0.003
판매	-0.007	-0.012	-0.017	0.005	0.017	0.006	-0.001	0.010	-0.022	0.036**
기능원 및 관련 기능	0.000	-0.002	-0.007	0.008	0.004	0.001	0.008	-0.006	-0.010	0.001
장치·기계조작 및 조립	0.000	-0.014*	0.006	-0.001	-0.002	0.001	-0.005	0.010	-0.006	-0.001
한국 체류기간										
관리 및 전문·사무	0.033**	0.000	-0.015	0.008	0.017	0.018	0.018	0.004	0.007	0.040**
서비스	0.000	0.004	-0.028	0.012	-0.003	0.012	0.002	0.012	-0.044*	-0.006
판매	0.005	0.017	-0.074	0.023	0.008	0.002	0.016	-0.025	0.014	0.016
기능원 및 관련 기능	0.013	-0.013	-0.016	0.023	0.011	0.019	-0.019	-0.001	-0.006	0.014
장치·기계조작 및 조립	-0.004	-0.002	0.000	0.015	-0.013	0.007	0.000	0.010	0.006	-0.005
상수항	4.929**	4.442**	4.523**	5.174**	4.389**	-0.615**	-0.901**	-0.311	-0.950*	-0.956**
λ	-0.169**	-0.290**	-0.182**	-0.160	-0.088	0.083	0.154	-0.172**	0.078	0.058
Adjusted_R ²	0.136	0.119	0.123	0.129	0.182	0.145	0.132	0.093	0.420	0.276
Observations	754	784	611	542	818	744	775	608	534	804

주: 1) 기타 아시아 및 그 이외의 국가를 지칭함.

2) <표 6-1>의 변수들이 통제되어 있음.

* p<0.05, ** p<0.01.

IV. 결 론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여성결혼이민자들의 임금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인적자본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2012년 전국 다문화가족 실태조사」의 원자료를 이용하여 분석한 결과, 학력이 임금에 미치는 영향은 1.0-1.3%로 다른 서양 국가에 이주한 노동자들의 학력 효과보다 작았으며, 모국에서 취득한 학력이 한국 노동시장에서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러나 모국에서의 직무경험은 유의한 영향이 없었으며, 한국에서의 직무경험을 대리하는 변수로 한국 체류기간을 도입하였는데 이 또한 유의하지 않았다. 직종별로는 관리 및 전문·사무직의 임금이 가장 높았으며, 또한 학력에 의한 임금 프리미엄이 가장 큰 직종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국적별 분석결과에서 총임금은 중국 출신(한족, 조선족) 여성이 높은 경향이 있었으며, 학력 프리미엄은 중국 출신 조선족과 기타 아시아 및 그 외 국가 출신 여성결혼이민자에게서 나타났다. 단, 관리 및 전문·사무직은 국적별로도 학력 프리미엄이 가장 큰 직종으로 나타났는데, 주로 중국(한족, 조선족)과 베트남 출신 여성결혼이민자에게서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이주노동자 임금함수 추정에서 이민국 체류기간은 대부분의 연구에서 양의 영향을 미치고 있는 데 비해 본 분석에서는 그러한 영향이 보이질 않았으며, 모국 잠재직무경험도 선행연구와 다른 결과가 나타났다. 노동시장 동화 가설(labor market assimilation hypothesis)에 의하면, 고용주 입장에서는 입국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외국인에 대한 정보(기술 및 직무경험 등)가 없기 때문에 비슷한 수준의 내국인보다 임금이 낮지만, 이민국 노동시장에서의 경험이 쌓일수록 점점 임금이 높은 곳으로 이동(mobility upward)하게 되기 때문에 임금이 증가한다고 하고 있다(Kossoudji, 1988). 그러나 본 연구의 결과는 이 가설과 다르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데, 그 이유 중 하나라고 생각되는 것은 그들이 결혼이민자라는 특수한 집단이기 때문이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즉, 그들은 우리나라에 노동을 목적으로 이주한 사람들이 아니며, 그들의 노동은 그들 자신의 상황(임신 및 출산), 또는 가계 경제적 상황에 따라 노동공급에 영향을 받게 된다고 할 수 있다(이규용 외, 2011; 조성호 외, 2014). 따라서 임신 및 출산으로 인하여 노동시장

에서 빠져나오게 되거나, 경제적으로 풍족하여 전업주부로 있던 여성들이 임신 및 출산 후 자녀가 어느 정도 자란 후, 또는 경제적 상황이 나빠져서 노동시장으로 재진입하는 경우, 노동시장에서의 축적한 인적자본이 부족하기 때문에 상향 이동이 어려울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직무경험이 인적자본의 축적이라고 단순하게 말할 수 없기 때문에 한국 체류기간의 영향이 유의하지 않은 결과가 도출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또 하나의 이유로 생각되는 것은 상기 내용과 연결되는 것으로 그들이 여성이라는 점이다. 즉, 여성이라는 특수성으로 인한 직무경험의 불연속성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본 분석에서의 직무경험은 데이터의 제약으로 인하여 잠재직무경험을 사용하였다. 잠재직무경험은 학업을 마친 이후에 직무를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 것을 가정하고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여성의 노동은 이러한 연속성 가정이 항상 성립하지 않는다. 즉, 도중에 일을 하지 않아 실제로 직무경험에 산입되면 안 되는 기간이 산입되는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가 도출된 것이라 생각된다. 따라서 앞으로 여성결혼이민자들의 정확한 직무경험 산출이 가능한 데이터로 분석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한계점을 언급하면, 언어 능력과 건강의 내생성을 고려하지 못한 점이다. 특히 언어능력은 내생성뿐만 아니라 측정오차의 문제도 심각하다고 생각되며, 향후의 연구에서는 이러한 내생성과 측정오차를 고려한 모델을 도입하는 것, 또는 언어 능력을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지표를 이용하여 조사된 데이터로 언어능력의 영향을 엄밀하게 추정하는 방법으로 이민자의 임금을 추정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강혜정·이규용. 「여성결혼이민자의 노동공급 결정요인 분석」. 『여성경제연구』 9권 2호 (2012. 12): 49-73.
- 김이선·양인숙·황정임·고혜원. 『결혼이민자의 사회, 경제적 통합 진전을 위한 브릿지 프로그램(Bridge Program) 추진 방안』. 서울: 보건복지가족부, 2008.
- 양인숙·김선혜. 「여성결혼이민자의 인적자본 및 사회자본이 취업에 미치는 영향」. 『경영경제연구』 34권 1호 (2011.8): 237-266.
- 이규용·박성재·강혜정. 『결혼이민자 가정과 노동시장 통합』. 서울: 한국노동연구원,

2011.

- 이규용·노용진·이정민·이혜경·정기선·최서리. 『체류 외국인 및 이민자 노동시장 정책과제』. 세종: 한국노동연구원, 2014.
- 장명선. 『서울시 결혼이민여성 취·창업능력개발을 통한 경제적 자립을 위한 연구』. 서울: 서울시여성가족재단, 2009.
- 장명선·이옥경. 『서울시 다문화가족 실태 및 지원체계 구축방안연구』. 서울: 서울시여성가족재단, 2009.
- 장서영·김이선·이로미·장인자·유지영. 『여성결혼이민자 취업지원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기초연구』. 서울: 한국고용정보원, 2009.
- 전기택·정해숙·김이선·김영란·주재선·김혜영·손창균·이재분·정기선·황정미·강민정·선보영·최윤정·주유선·박건표·동제연. 『2012년 전국 다문화가족 실태조사연구』. 서울: 여성가족부, 2013.
- 정기선·김영혜·박경은·이은아·박지혜. 『경기도 내 국제결혼 이민자가족 실태조사 및 정책적 지원방안 연구』. 경기도: 경기도가족여성개발원, 2007.
- 조성호·변수정·이소영·박종서·서희정·유재언. 『결혼이민자 및 그 자녀의 인구자질에 대한 연구』. 세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4.
- 통계청. 『혼인·이혼통계』. 대전: 통계청, 2010.
-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대전: 통계청, 2014.
- 행정자치부. 『지방자치단체 외국인주민현황 통계』. 서울: 행정자치부, 2014.
- Angrist, J. D. and V. Lavy. "The Effect of a Change in Language of Instruction on the Returns to Schooling in Morocco." *Journal of Labor Economics* 15 (1) (January 1997): 48-76.
- Adamuti-Trache, M. and R. Sweet. "Exploring the Relationship Between Educational Credentials and the Earnings of Immigrants." *Canadian Studies in Population* 32 (2) (Summer 2005): 177-201.
- Becker, Gary S. *Human Capital: A Theoretical and Empirical Analysis with Special Reference to Education*. 3rd ed. Chicago: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93.
- Bleakley H. and A. Chin. "Language Skills and Earnings: Evidence from Childhood Immigrants." *Review of Economics and Statistics* 86 (2) (May, 2004): 481-496.
- Chiswick, Barry R. "The Effect of Americanization on the Earnings of Foreign-born Men."

-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86 (5) (October 1978): 897-921.
- Chiswick, Barry R., and Miller, W. Paul. "The Endogeneity between Language and Earnings: International Analyses." *Journal of Labor Economics* 13 (2) (April 1995): 246-288.
- _____. "Occupational Language Requirement and the Value of English in the US Labor Market." *Journal of Population Economics* 23 (1) (January 2010): 353-372.
- Dustmann, C. and A. Van Soest. "Language and the Earnings of Immigrants." *Industrial and Labor Relations Review* 55 (3) (April 2002): 473-492.
- Ferrer, A. and W. C. Riddell. "Education, Credentials, and Immigrant Earnings." *Canadian Journal of Economics* 41 (1) (February 2008): 186-216.
- Fong, E. and X. Cao. "Effects of Foreign Education on Immigrant Earnings." *Canadian Studies in Population* 36 (1-2) (Spring/Summer 2009): 87-110.
- Friedberg, Rachel M. "You Can't Take It with you? Immigrant Assimilation and the Portability of Human Capital." *Journal of Labor Economics* 18 (2) (April 2000): 221-251.
- Heckman, James J. "Sample Selection Bias as a Specification Error." *Econometrica* 47 (1) (January 1979): 153-161.
- Kanas, A. and F. van Tubergen. "The Impact of Origin and Host Country Schooling on the Economic Performance of Immigrants." *Social Forces* 88 (2) (December 2009): 893-916.
- Kossoudji, Sherrie A. "English Language Ability and the Labor Opportunities of Hispanic and East Asian Immigrant Men." *Journal of Labor Economics* 6 (2) (April 1988): 205-228.
- Lee, Lung-fei. "Health and Wage: A Simultaneous Equation Model with Multiple Discrete Indicators." *International Economic Review* 23 (1) (February 1982): 199-221.
- Long, James E. "The Effect of Americanization on Earnings: Some Evidence for Women."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88 (3) (June 1980): 620-629.
- Matto, A., Neagu, Ileana C., and Ozden, Çağlar "Brain Waste? Educated Immigrants in the US Labor Market." *Journal of Development Economics* 87 (2) (October 2008): 255-269.
- Mincer, J. "Investment in Human Capital and Personal Income Distribution."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66 (4) (August 1958): 281-302.

_____. *Schooling, Experience and Earnings*. New York: National Bureau of Economic Research, 1974

OECD. *The Well-being of Nations: The Role of Human and Social Capital*. Paris: OECD, 2001. Retrieved from www.oecd.org/dataoecd/36/40/33703702.pdf

Sanromá, E., Ramos, R., and H. Simón. *Immigrant Wages in the Spanish Labour Market: Does the Origin of Human Capital Matter?* (IZA Discussion Paper No. 4157). Bonn, Germany: Institute for the Study of Labor (IZA), 2009.

Zeng, Z., and Y. Xie. "Asian-Americans' Earnings Disadvantage Reexamined: The Role of Place of Education."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109(5), (March 2004): 1075-1108.

<부표 1> 1단계 Probit 추정 결과: 전체 추정

변수명	model1	model2	model3	model4
교육연수	0.022**	0.013	0.011	0.020**
한국어 능력				0.017**
건강(좋은=1)	0.119**	0.100	0.098	0.109**
모국 잠재 직무경험연수/100	1.045*	0.331	0.107	1.265*
모국 잠재 직무경험연수 제공/100	0.021	0.053*	0.057*	0.015
한국 체류기간	0.234**	0.488**	0.491**	0.223**
한국 체류기간 제공	-0.009**	-0.024*	-0.024*	-0.009**
자녀수				
5세 미만	-0.417**	-0.607**	-0.615**	-0.421**
6-12세 미만	-0.153**	0.036	0.045	-0.153**
12-18세 미만	0.036	0.090	0.094	0.036
18세 이상	0.055	-0.055	-0.054	0.051
국적(Ref. 기타 아시아 및 그 외)				
중국(한족)	0.024	0.242**	0.249**	-0.009
중국(조선족)	-0.011	0.180	0.193*	-0.084
베트남	0.275**	0.321**	0.325**	0.280**
필리핀	0.114*	0.163*	0.162*	0.130**
납편 소득(Ref. 150만원 미만)				
150-200만 원 미만	-0.158**	-0.137*	-0.144*	-0.158**
200-250만 원 미만	-0.186**	-0.210**	-0.214**	-0.187**
250만 원 이상	-0.498**	-0.564**	-0.577**	-0.496**
집의 소유형태(Ref. 월세)				
전세	0.003	0.013	0.010	0.002
자가	-0.064	-0.157**	-0.160**	-0.065
도시거주 여부(=1)	-0.060	0.025	0.019	-0.061
상수항	-1.081**	-1.491**	-1.444**	-1.224**
Pseudo_R ²	0.135	0.177	0.086	0.137
Observations	7996	4,109	3,577	7,996

주: model1은 <표 2>와 <표 3>, model2, model3은 <표 4>, model4는 <표 5>의 1차 추정 결과를 나타냄.

〈부표 2〉 1단계 Probit 추정 결과: 국적별 추정

변수명	중국 (한족)	중국 (조선족)	베트남	필리핀	기타
교육연수	0.017	0.024	0.012	0.055**	0.010
건강(좋은=1)	0.192**	0.279**	-0.061	0.104	0.051
모국 잠재 직무경험연수/100	2.420*	4.312**	-0.726	-3.672	-2.781*
모국 잠재 직무경험연수 제곱/100	-0.021	-0.071*	0.108	0.210*	0.143**
한국 체류기간	0.104**	0.091**	0.500**	0.274**	0.256**
한국 체류기간 제곱	-0.004**	-0.003*	-0.023**	-0.009**	-0.010**
자녀수					
5세 미만	-0.595**	-0.596**	-0.550**	-0.317**	-0.387**
6-12세 미만	-0.076	-0.133	-0.396**	-0.160*	-0.182**
12-18세 미만	0.069	0.067	-0.081	-0.119	0.095
18세 이상	-0.024	0.059	0.097	-0.099	0.045
남편 소득(Ref. 150만원 미만)					
150-200만 원 미만	-0.216*	-0.053	-0.106	0.009	-0.304**
200-250만 원 미만	-0.225*	-0.185	-0.269**	-0.106	-0.148
250만 원 이상	-0.545**	-0.345**	-0.588**	-0.194	-0.656**
집의 소유형태(Ref. 월세)					
전세	-0.048	0.105	0.004	-0.069	0.002
자가	-0.118	0.082	-0.129	-0.142	-0.020
도시거주 여부(=1)	0.000	0.036	-0.103	-0.025	-0.123
상수항	-0.459	-0.828*	-1.065**	-1.574**	-0.742**
Pseudo_R ²	0.129	0.123	0.174	0.162	0.139
Observations	1,538	1,383	1,649	1,198	2,228

주: <표 6-1>, <표 6-2>, <표 7>의 1차 추정 결과를 나타냄.

abstract

**Estimation of Wage Equations for Female Marriage
Migrants in Korea****Sungho Cho · Soo-Jung Byoun**

This study investigates the influence of human capital on wages of female marriage migrants in Korea using the 'National Survey on Multicultural Families 2012'. The results show that educational attainment has little influence on wages of female marriage migrants in Korea and that educational attainment in their origin country has positive influence on the labor market in Korea. However, work experiences in the origin country and duration in Korea are not significantly related to wages of female marriage migrants in Korea. The subgroup analyses by nationality find that the education wage premium is large in groups for Korean-Chinese women, other Asian countries and other countries. Among occupations, managers and professionals-officers earn the highest wages in all groups. In addition, the manager and professional-officer groups show the large education wage premium, especially among Chinese, Vietnamese and Korean-Chinese female marriage migrants.

Keywords: female marriage migrants, wage equation, human capital